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이름	김XX
파견국가	독일	파견도시	Brandenburg an der Havel
파견대학	Brandenburg university	파견기간	1학기(2021.09~2022.02)
귀국여부	'2022.02.20에 입국 예정입니다.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베를린에서 기차타고 1시간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중소도시에 위치한 대학입니다. 본 대학교 처럼 캠퍼스가 따로 위치해 있고 그 안에 기숙사 까지 있습니다. 학부 3개정도 있는 크지 않은 학교이지만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 만큼은 열정적 입니다. 기숙사 근처에 큰 마켓들도 위치하고 학교 식당도 존재해 손쉽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제가 속해있던 컴퓨터공학 학부는 영어로된 수업이 정말 적었다는 점 입니다. 따른 경영이나 경제학부 쪽은 영어로된 수업이 많다고 들었지만 저희 학부는 실제로 와보니 많은 수업들이 독일어로 변경되 들을 수 있는게 한정적이였어서 그 점이 큰 변수로 다가왔습니다. 파견확정하기전에 영어로된 수업 목록을 확인하고 올 수 있지만 그것이 또 변경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 파견대학측으로 확답을 받고 오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p>
2021-1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Brandenburg history - 강사와 같이 파견도시에 있는 박물관들을 견학하는 수업입니다. 격주 토요일마다 견학이 있어 부담도 없었고 재밌었습니다.</p> <p>German course a1 - 독일어 초급반 수업입니다. 교환학생 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초반 학생들과 어울리기도 좋습니다.</p> <p>Computer science and logic - 실습은 영어로 진행되었지만 격주에 한번 풀이고 본 수업을 독일어로 수업이되 아쉬웠습니다. 학생 본인이 열심히만 한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컴퓨터 공학의 기초 수업이었습니다.</p>

	<p>Algorithm and data structure - 강의, 실습 2개가 다 영어로 진행되는 저희 학부의 유일한 수업이었습니다. 수업내용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알고리즘과 데이터구조에 관심이 있으면 정말 추천해주고 싶지만 관심이 없으면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개강 전주에 교환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마지막날 금요일 바비큐 파티를 진행했습니다. 9월달 당시는 코로나 유행이 심각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큰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독일과 유럽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 새로운 친구들이나 파티를 하고 싶으면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교환학생 담당자는 Heike라는 분이고 굉장히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친절하 사람입니다. 미팅을 잡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습니다.</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9월 10월 그렇게 춥지 않은 날씨 입니다. 햇빛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월달부터 햇빛을 보기 힘들 것 입니다.  날씨 또한 추워져서 아마 한국보다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중소도시답게 밤이 되면 차도 다니지 않고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안이나 안전이 좋지 않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이니 만큼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나 베를린은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니 밤늦게 혼자 다니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숙소</p>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일부러 룸메이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싱글룸이 아닌 주방과 화장실을 공유하는 기숙사를 신청했습니다. 바이러스 전염이나 다른 학생들과 같이 지내는 것을 꺼려하는 학생은 싱글룸을 추천합니다. 안에 부엌과 화장실, 발코니 까지 있습니다. 공유 기숙사도 각자 방이 있습니다. 한국 기숙사보다 훨씬 큰 개인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기숙사 시설안에 조그만한 헬스장이 있다고 들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사</p>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직접 요리 ( ) 기타 (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가끔씩 학교 식당을 이용했고 대부분 직접 요리 했습니다. 학교 식당은 2.5유로 안팎이고 가성비 대비 정말 좋습니다. 직접 요리할때는 근처 마켓에서 장을 보왔고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마켓 물가가 많이 쌉니다.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학교 식당보다 자주 간곳은 케밥집이었는데 3.5유로에서 4유로면 큰 케밥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요리하기 귀찮을 때 정말 자주 이용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교통</p>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기숙사에서 지내 걸어서 학교 건물로 이동했고 중앙역으로 이동할 때는 보통 트램을 이용했습니다. 9시 넘어서는 트램이 다니지 않아 그 이후에는 버스를 이용했고 보통 버스도 새벽 1시 안에는 끊겨 새벽 1시 이후 중앙역에서 기숙사로 이동할 경우는 택시를 타거나 걸어야 만 했습니다. 중앙역에서 기숙사는 도보 30분 소요됩니다. 주요도시는 포츠담과 베를린이 있습니다. 학교학생카드로 포츠담 베를린까지 모든 교통수단이 무료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정말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베를린으로 가는 기차는 1시간 마다 있고 새벽에는 2,3시간 마다 있으며 운이 좋지 않으면 기차가 연착되거나 심할 경우 취소 될 수 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70만원	국제학생증 할인을 받으면 위탁수확물 2개에 저렴한 가격으로 항공편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Fees	Student id card Internet fee Tv and radio fee per a month 대략 2만5천원 총 대략 15만원	
보험료	<i>파견 대학교 측에서 사보험을 추천해주었고 신청을 했습니다. 매달 5만5천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총 대략 33만원</i>	
숙소	기숙사 매달 35만원 총 210만원	
식비	매달 25만원 총 150만원	
교통비	-	
책값	3만원	
기타1	초기정착 비용 100만원	
기타2	여행비 80만원	
합계	600만원~700만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우선 파견대학교에 영어로된 수업들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영어로된 수업 목록을 정리한 파일을 확인 하더라도 교환학생 담당자에게 확인 메일을 받을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영어에 대한 모든 것에 준비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으로서 영어는 필수이기 때문에 수업뿐만 아니라 사교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시기 전에 최소한 듣기, 회화, 어휘를 공부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독일어를 어느정도 배우고 오시면 정말 편할 것 입니다.

저 또한 독일어에 관심이 있어 어느정도 숙지하고 온 상태라 수업이나 기본적인 생활할 때 조금이나마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파견 도시는 베를린과 같은 국제도시가 아닌 지방의 도시이다 보니 영어를 말하는 것에 대한 꺼리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독일어에 대한 자부심과 독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는 아니꼬운 시선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독일어를 조금 익히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제 경험상으로는 한국의 대학교보다 더 많은 자발성을 요구합니다. 때문에 관심있는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관심이 없는 수업들 들을 경우 또한 그 수업에 교환학생이 한명도 없을 경우 소심해 지기 쉽습니다. 여기 문화는 발표 한다고 해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낸다 해서 불편한 시선을 받지 않습니다. 모두가 발표 하길 원하고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면 바로 드러냅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화에 적응을 빨리 하시면 더욱 수업에 녹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만약 교환학생을 다시 가게 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바로 또 할 것 같습니다.

수업 변경으로 인해 학점을 많이 못 얻은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독일인이 아닌 다른 나라 학생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수업 방식 아래 다른 시스템으로 그 환경에 적응하는 이 경험은 아마 다시 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환 학생이라는 점이 다른 나라에서 온 각국의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적응 하면서 얻는 문화의 다양함과 포용성 그리고 새롭게 가치관이 변화되는 제 자신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경험이었고 값진 관계들을 얻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친구 송별회



친구들과 체코 프라하 여행



친구들과 뉘른베르크 여행



친구들과 뮌헨 여행



친구들과 기숙사에서 음식 교류  
(멕시코 음식)



친구들과 베를린에서 한국 치킨 탐방